

제200회 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

- 문래공원 지하 벙커 관리 및 운영 실태 -

# 현장방문 사전보고



영등포구청장  
(도시국)

## 문래공원 지하 벙커 관리 및 운영 실태

### □ 문래근린공원 조성 현황

- 최초 공원 지정 : 총독부고시 제208호(1940.3.12.)
- 최종 고시 지정 : 서울시고시 제266호(1986.4.28.)
- 조성 계획 결정 : 건설부고시 제172호(1982.4.28.)
- 조성계획결정(변경) : 서울특별시고시 제734호(1985.10.30.)
- 조성계획결정(최종)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63호(2008.5.15.)
- 공원 조성, 개원 : 1986. 6. 18.(서울시에서 조성)
  - 1988년도 5월 : 서울시 → 영등포구 이전(지방자치법)

### □ 지하벙커 조성 현황

- 1961년 5.16 당시 문래공원 일대는 서울을 관할하는 육군 제6관구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음
- 5.16때 6관구 사령부내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벙커가 남아 있음
- 이후 문래공원 일대는 1974.3.1 제6관구 사령부를 모체로 경인 지역 방어사령부(수도군단사령부)가 창설되고, 1985년 안양으로 부대 이전 후 1986.6.18 근린공원으로 조성, 개원

## □ 지하벙커 시설 현황

- 공원조성계획 : 녹지
- 조성연도 : 1961년 이전
  - 5.16 당시 6관구 사령부 집무실 등으로 사용 추정
- 벙커규모 : 112 $m^2$ (출입구 5개소, 5개실로 구성, 높이 230 $cm$ )
- 현재용도 : 별도 이용 없음(미개방 - 시설 안전 및 시민단체 요구)

## □ 지하벙커 활용 기본계획 용역 시행

- 용역기간 : 2009. 3. 5. ~ 8. 31.
- 목 적 : 지하벙커에 대한 문헌적, 학술적 고증을 통하여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
- 용역기관 :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
- 용역결론
  - 관련자 인터뷰 및 문헌고증 결과 현재의 지하벙커가 5.16 및 제 6관구 사령부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벙커의 역사적 의미는 판단 불가
  -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영등포구 및 문래동의 역사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시실 등으로 활용 방안 강구 : 교육 및 홍보 효과 등